

묘를 쓰지 못하게 심은 느티나무



지정번호 보은-7

지정년도 1982

관리기관 보은

수령 460년

수고 15m

흉고둘레 6,6m



충북 보은군 마로면

송현리 198-1

36° 26' 04.35" N

127° 50' 01.90" E

작은 동산 위에 있는 보호수(보은-7) 느티나무는 도로 옆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, 마을비와 정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. 느티나무의 나이는 460년으로 추정된다. 나무높이는 15m, 가슴높이둘레는 660cm 가량이다. 나무갓은 너비가 18m 정도이며, 옆으로 퍼진 모양이다.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많이 갈라져 퍼졌다.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다. 느티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정자는 송현정이다. 송현정 옆 마을비에는 한 편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솔고개는 송현리 마을의 다른 지명이다. 송현리는 옛날에 큰 소나무 고개의 밑에 마을이 있어 마을지명을 솔고개 또는 송현으로 불렀다. 전승하는 이야기는 박씨 삼형제와 관련이 있다. 연대 미상의 박씨 삼형제는 뒷산

옥녀봉의 명기가 이곳에 모여 있어 묘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. 그래서 이곳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. 현재는 1그루만 남아 있다. 의리가 있고 효성이 지극한 만형이 심은 나무가 큰 나무이고, 둘째가 심은 나무는 작은 나무이며, 어질지 못하였던 막내가 심은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여 죽었다. 이 나무가 죽자 막내의 후손이 끊어졌다.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에 얹힌 전설을 교훈 삼아 이웃 간의 의리와 어른 공경을 전통으로 이어왔다. 느티나무는 잎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. 또한 느티나무는 대소사를 의논하는 마을의 정자목이며, 그 아래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.

